

## 「한-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 발표

- 에너지자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안정적 수급 협력 의지 재확인 -
  - 양국 장관 공동성명 통해 중동 정세 불안 속 경제 안보 협력 강화 -
- 【관련 국정과제】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대한민국과 호주 정부는 4.30.(목) 대한민국-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Australia-Republic of Korea Joint Statement on Energy Resource Security)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은 대한민국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호주 페니 윙 외교장관, 매들린 킹 자원장관, 크리스 보언 기후에너지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되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과 그로 인해 역내 에너지자원 및 기타 주요 원자재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개방된 시장과 규범 기반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및 에너지자원 협력이 양국의 경제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국은 오랜 기간 서로 상호보완적인 에너지자원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LNG 공급국이자 콘덴세이트 및 핵심광물의 주요 공급국이며, 우리나라는 호주의 주요 정제 석유제품 공급국이자 최대 경유 공급국으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에너지자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경유 및 기타 액체연료, LNG 및 콘덴세이트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잠재적 공급 차질 발생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통보 및 협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금번 공동성명은 최근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자원 분야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급망 회복력 제고 및 안정적 수급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경제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붙임 1. 한-호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  
 2. 비공식번역본. 끝.

담당 부서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	과 장	이민영 (044-203-5240)
		서기관	신승일 (044-203-5253)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 중남미대양주통상팀	팀 장	이동섭 (044-203-5630)
		사무관	박경숙 (044-203-5637)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경제안보외교과	과 장	선주연 (02-2100-8192)
		사무관	남정근 (02-2100-8196)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2과	과 장	문제필 (02-2100-7374)
		서기관	설지원 (02-2100-7375)